

# 내년 도내 고교 신입생 학급당 학생 수 하향 조정

도교육청, 전주 28명→26명·익산 27명→24명으로 줄여

전북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학급당 학생수가 하향 조정된다. 이는 2024학년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배정 계획에 따른 것으로, 내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정원은 1만6,797명으로 올해보다 997명 감소할 전망이다. 2007년생(황금돼지띠) 입학으로 올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신입생 수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2024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학급당 학생수를 최대 3명까지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전주지역 평준화 일반고의 경우 학급당 28명에서 2명 감소한 26명을 배정했고, 익산지역은 학급당 27명에서 3명 감소한 24명을 배정했다. 또 군산 지역은 여학교 과밀 해소를 위해 군산 여고에 한시적으로 증설했던 2학급을 감축하면서 학급당 학생수를 올해와 같이 27명으로 배정했다. 이를 제외한 전북지역의 일반고는

학급당 20명을 배정했으나, 일부 학교의 경우 지역별 여건에 따라 22명에서 27명까지 차등 배정했다. 한편 특성화고는 올해와 동일하게 학급당 20명을 배정했으며, 특목고와 자율고는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별도 배정했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중학교 졸업에 정자 증감 인원을 반영해 지역별 정원을 차등 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별·학교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입학정원 배정으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호하고,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내년 유치원  
초등교사 77명 선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4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누리집(www.jte.gkr)에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선발인원은 공립은 유치원 교사 18명(장애 1명), 초등교사 41명(장애 3명), 특수유치원교사 5명(장애 1명), 특수초등교사 13명(장애 1명) 등 총 77명(장애 6명)이다. 또 사립은 특수초등교사 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10월 2~6일까지 5일간 온라인 교직원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kr)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1차 시험은 11월 11일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 발표된다. 이어 2차 시험은 내년 1월 10~12일까지 3일 동안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24년 2월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알림사항고시/공고)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환생대·자연대 신입 학장 임명

환생대학장에 오병택 교수·자연대학장에 노희석 교수

전북대학교 환경생명자원대학 신입 학장에 오병택 교수(생명공학부)가, 자연과학대학 신입 학장에 노희석 교수(물리학과)가 각각 임명됐다고 전했다. 임기는 9월 1일부터 2년이다. 이에 양오봉 총장은 지난 12일 대학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신입 학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입 오병택 환경생명자원대학 학장은 환생대 부속실습장과 농생명식품연구개발원 원장을 맡고 있으며, 생명공학부 학부장 등을 역임했다. 오병택 학장은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으로 대학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며 "글로벌대학 30 사업 선정과 학생 중심

대학 실현을 위해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입 노희석 자연과학대학 학장은 정보과학대학원 원장직을 수행 중이며, 자연대 물리학과 학과장과 부학장 등을 역임했다. 노희석 학장은 "우리대학이 추진 중인 여러 사업에 함께 하겠다"며 "특히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학장님들은 혁신적인 대학 발전을 이끌어 나갈 책임자"라며 "대학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의 발전을 적극 수행해 대학 발전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오병택 학장 (환경생명자원대학)



노희석 학장 (자연과학대학)



전주대학교는 13일 온누리홀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에게 명예 학위 수여했다.

## '아시아 평화·발전 업적 인정'

전주대, 하토야마 유키오 日 전 총리에 명예박사 수여  
한·일 과거사 올바른 인식... 과거 침략에 대해 사죄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13일 온누리홀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日 전 총리에게 명예 행정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하토야마 전 총리는 본교 학생과 교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을 펼쳤다. 대학원(전용석 원장)은 하토야마 유키오(76) 日 전 총리를 초청하여 일본 근현대 정치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겼으며, 정계를 떠난 이후에도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 이사장, 유아이재단 이사장, 국제아시아 학회 명예 고문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아 열정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주대에 따르면 한·일 과거사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며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해 과거 일본의 침략에 대해 사죄하는 등 아시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업적을 인정해 명예 행정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특히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번 수여식을 위해 전주대학교를 직접 찾아 오랫동안 정치와 외교에 관여해 온 사람으로서 매우 명예로운 일로 감사와 기쁨을 전했다. 더불어, 자기 경험과 통찰력을 공유하는 강연의 시간을 가졌는데, 한·일 제휴가 어떻게 미·중 대립

의 해소와 국제적 평화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강연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신동아학원 차종순 이사장과 박진배 총장, 임정영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해 하토야마 전 총리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축하하며 특강을 경청했다. 박진배 총장은 "하토야마 전 총리에게 전주대학교에서 명예 행정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총리님이 가진 경험과 통찰력이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고, 나아가 한일관계의 우호 증진과 동아시아 및 국제적인 평화 협력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군산시, '전북 시민대학' 오픈

드론으로 제작하는 힐링 영상 콘텐츠 프로그램 등 개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군산시(시장 강임준)와 손 잡고 2023 전북 시민대학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13일 호원대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 군산시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자체 개발한 3개 프로그램을 군산시민에게 선보였다. 그림책 테라피를 적용한 인간의 삶(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진주 교수), 군산항토음식 푸드스타일링하기(외식창업경영학과 김나영 교수, 정숙경 교수), 드론으로 제작하는 힐링 영상 콘텐츠(공연미디어학부 최부현 교수, 백철기 감독)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에 지난 9월 1차로 진행된 '드론으로 제작하는 힐링 영상 콘텐츠 강좌'에서는 학내 최신 첨단 시설을 갖춘 영상편집실과 홀로그램 영상실을 적극 활용했다. 또 실외에서 펼쳐진 드론 활동은 수강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드론 강좌에 참여한 수강생은 "평소 드론에 관심이 많았는데, 교수님이 드론 촬영의 기초부터 지도해 주고, 직접 촬영해 편집한 영상을 군산시 평생



학습마당에서 상영할 계획이라 매우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부현 교수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좋은 콘텐츠가 개발돼 우리 지역에 애용심을 갖는 참여형 시민 양성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희성 총장은 "호원대학교는 2024학년도 K-미래인재대학 소속의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과 신설 등으로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우수한 교수진과 프로그램으로 다채로운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 함께 누리는 군산시 평생학습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16~17일 전주비전대학교 총장배 태권도대회

제18회 전주비전대학교 총장배 태권도대회가 16~17일 양일간 문화체육관에서 열린다. 이 대회에 1,300여 명의 임원 및 선수들이 참가해 품새와 겨루기 등에서 열띤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16일에는 1부 개인 품새, 2부 개인품새, 3인조 단체품새, 복식품새, 가족품새, 태권체조 등이 진행되고 이어 17일에는 초등부 저학년, 남녀 초등부 중학년, 남녀 초등부 고

학년, 남녀 중등부, 남녀 고등부 등 겨루기 경기가 펼쳐진다. 한편 16일 오전 11시 시작될 개회식에서는 도내 최초로 창설된 전주비전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화려한 발차기와 다양한 퍼포먼스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 고등부 입상자에게는 장학금과 함께 전주비전대 태권도 체육학과 특례입학의 혜택도 주어진다. /정은성 기자

도내 학생들, 전국상업경진대회서 실력 겨룬다

14~16일 경남서 경진대회... 도내 10개 학교 109명 참가  
경제골든벨·회계실무·비즈니스영어 등 총 15개 종목

도내 상업계고 학생들이 전국의 학생들과 실력을 겨룬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4~16일 경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13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 도내 10개교 109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경진종목과 경연종목 등 총 15종목이 치러진다. 경연 종목은 △경제골든벨 △창업동아리레포트 △동아리레포트 △대회

홍보크리에이터 등 4개 종목이며, 경진 종목은 △회계실무 △창업실무 △사무행정 △전자상거래실무 △비즈니스영어 △금융실무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 II △세무실무 △ERP(통합적자원관리) △취업설계 프레젠테이션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등 11개 종목이다. 도내에서는 지난 5월 개최된 전북상업경진대회에서 금·은·동상을 수상한 학생들이 전북대표로 출전한다. 특히 도교육청은 전국대회 출전 학생들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교별 교육훈련비를 지원해 왔다. 이를 위해 전국대회 출전하는 도내 학생선수와 지도교사들은 지난 7월 25~26일 한자리에 모여 출제 동향을 분석하고, 각 종목별 심화지도도를 통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상업계 학생들에게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대회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해 미래사회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육문화회관

오늘 IB교육 특강 개최

전주교육문화회관은 14일 학부모 및 교사 대상 IB스 혼공법의 IB 국제 바칼로레아(교육)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교육은 1968년 스위스 제네바 민간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개발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과 창의융합적 글로벌 미래교육이다. 이번 특강은 현재 IB영역강사이며 다수의 기관에서 IB교육 특강을 진행한 IB스 혼공법 학부교과 교사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강연은 오전 10시와 오후 3시 2회차로 나눠 운영된다. 이현규 관장은 "IB교육 특강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IB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확대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제일고, 16일 평생학습발표회 참가

조리제빵과 학생들, 쿠킹클래스 체험부스 운영

남원제일고등학교 조리제빵과 학생들이 평생학습 발표회 학습에 참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16일 남원평생교육원 주최로 열리는 평생학습 발표회에 남원제일고 조리제빵과 학생들이 참가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쿠킹클래스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이날 제과제빵 특성을 살려 쿠킹을 만들고, 직접 꾸며보는 요리체험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남원제일고는 매년 흥부제, 춘양제, 진로직업박람회, 노암동 마을축제 등 지역 행사에 참가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쿠킹클래스와 요리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도 푸드트러, 밀키트개발, 글로벌해의연수, 레스토랑 운영,

국제요리대회참가, 기능경기대회, 자격증방과후, 도시락개발, 카페바리스타 등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 한편 조리제빵과 3학년에 들어온 남학생의 경우, 해군조리부사관 특성화반의 혜택을 받아 부사관에 무시험으로 입학 가능하다. 김한태 교장은 "지역과 함께 발전해 나가며, 학생들에게 체험의 의미를 주는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서 "남원제일고 조리제빵과의 발전을 기원하며, 학생과 선생님들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